



KBO 통산 홈런 1위 SSG 최정 '내친김에 500호까지'

서 뛰던 2013년 6월 20일 KBO리그 352번째 홈런을 터뜨려 통산 1위로 올라선 뒤 10년 10개월 동안 타이를 보유하다가 이젠 최정에 게 '단독 1위 자리'를 내줬다.

"빨리 이승엽 감독님 기록을 넘어서서 조용하게 야구하고 싶다"고 털어놓던 최정도 이승엽 감독의 기록을 넘어선 뒤에는 "개인 통산 500홈런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욕심 난다"고 새 목표를 제시했다. 최정은 여러 누적 기록에서 '신 기록'에 다가서고 있다.

특점 부문에서는 이미 단독 1위다. 지난해 9월 6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1천356번째 득점을 해 이승엽 감독의 기록(1천355득점)을 넘어섰다. 24일까지 1천386개로 득점을 늘려 2위권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여전히 이승엽 감독이 통산 득점 부문 2위이고, 현역 선수 중에는 손아섭(NC 다이노스)이 1천330

24일 부산 롯데전서 468호 작렬 이승엽 감독기록 넘어 새 역사 역대 2번째 1500타점 고지 근접 사구 330개로 세계 최고 기록도

개로 최정 다음으로 득점이 많다. 경기 출장은 2천185경기로, 현재 4위이지만 최정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한 현역 선수는 강민호(삼성 라이온즈·2천260경기)뿐이다. 올 시즌도 예전처럼 큰 부상 없이 마 치면 은퇴한 정성훈(2천223경기), 박용택(2천237경기)을 제치고 이 부문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최정은 KBO 역대 두 번째 1천500 타점 고지에도 접근하고 있다. 24일 롯데전 홈런으로 개인 통산 타점을 1천476개로 늘린 최정은 이 부문 2 위 이승엽 감독의 기록(1천498개)에 22개 차로 다가갔다. 24타점을



공 2위 박석민(212개) 보다 127번이나 더 맞아 출루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이 부문 1위는 휴이 제닝스(사구 287개)다. 최정은 투수의 공에 너무 자주 맞아 '마그넷 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승엽 SSG 감독은 "건강을 타고 났지만, 그만큼 관리를 잘한 덕에 그렇게 자주 투수 공에 맞고도 장기 공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근 전 감독은 "사실 내가 SK 감독일 때 선수들에게 '가능한 훈련의 120%'를 시켰다. 훈련을 20%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100%가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그런데 최정은 훈련의 100%,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를 해냈다. 2006년 11월 제주도 마무리 캠프에서는 수비 훈련 하며 평균 1천개, 프리 배팅 1천개 씩을 했다. 최정이 정상급 타자로 올라선 2011년 스프링캠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익산 남성중 운동장 인조 잔디로 새단장

익산 남성중학교(교장 소병식)는 24일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성환 익산교육장, 김영희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사업에는 약 9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친환경 인조 잔디 운동장과 모듈형 스포츠 플라스틱 바닥재로 구성된 농구장, 육상 트랙 등을 조성했다.

이번 개장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익산 시민들의 스포츠 생활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식 교장은 "안전하게 조성된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우리 남성중학교 학생들이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천기자

'닥공' 전주시민축구단 28일 '홈 2연승' 노린다

전주시민축구단이 기본 좋은 K4리그 홈 2연승 도전에 나선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A구장에서 '2024 K4리그' 6라운드 평창유나이티드축구클럽과 홈경기를 갖는다.

전주는 올 시즌 5라운드까지 경기당 10골(평균 2실점)을 실점하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11골(경기당 평균 2.2골)로 화끈한 모습으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전주는 팀 득점에서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다.

승점 6점(1승 3무 1패)으로 8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평창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 리그 2연승과 함

K4리그 6라운드 평창UTD전 선두권 진입 교두보 확보 전력

께 선두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홈경기에서 전주는 무승부를 통한 승점 1보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공격 축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격에서 김도형과 오태환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이고, 중원에서는 양태열과 이학선, 신원호, 용환빈 심요섭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경기 흐름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장순혁과 김창수, 박광



화끈한 공격축구를 무장한 전주시민축구단이 28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A구장에서 평창유나이티드축구클럽과 홈경기를 갖는다.

운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골문은 지난 경기 클린 시트를 선보인 김재환이 또다시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시즌 초반 훈련장과 홈 경기장 문제로 모든 부분이 힘들었지만 구단과 선수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홈경기인 만큼 막강화력으로 승리

를 거둬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 하고 선두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천기자

오늘의 경기

프로야구	KIA-LG(잠실) kt-SSG(인천) 롯데-NC(창원) 두산-한화(대전) 삼성-키움(고척·이상 18시30분)
골프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페럼클럽), KLPGA 투어 크리스토프앤씨 KPGA 챔피언십(에이크우드)
핸드볼	남자부 플레이오프 SK-하남시청(19시·SK핸드볼경기장), 제79회 전국중별선수권대회(10시·삼척시민체육관 등)
테니스	안동오픈(안동시민운동장), ITF 인천국제주니어대회(인천열우물코트)
씨름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문경장사대회(11시30분·경북문경실내체육관)
역도	문곡서상천배대회(10시·양구용해체육관)

기사제보 및 구독 관련 문의!

전라일보 이벤트 소식까지~

'전라일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하고 소식 받으세요!

편집국	232-3131~3	군산본부	442-2233
총무국	287-2700	익산본부	858-9923
광고부	231-8888	정읍분실	532-8780
판매부	282-7853	남원분실	633-8357
총무국(FAX)	285-2679	김제지사	545-4686
편집국(FAX)	284-0705	완주분실	243-4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전동) (우)55038		무주지사	324-1103
전라일보		진안지사	433-3000
		장수지사	352-0325
		임실지사	642-1800
		순창지사	653-0444
		고창지사	564-7900
		부안지사	580-4142
		광주전남지사	062)525-7700